

홈 > 뉴스 > 사회·기획

## “현장 실무교육으로 내가 핵심인재”

가평시설공단, 한국폴리텍Ⅲ대학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2017년 11월 17일 (금) 16:58:48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mailto:gpjn2011@naver.com)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병선)의 정도경영을 통한 인재육성의 목적과 종합 직업능력 개발대학인 한국폴리텍Ⅲ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이정주)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의 핵심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단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지원은 물론 재직근로자의 기술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상호 교육, 지식, 기술, 정보교환과 상호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기반 마련에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백병선 이사장은 “교육은 백년대계의 사업인 만큼 오늘 협약식은 한 그루의 나무를 함께 심는 것이며, 그 어느 약속보다 진실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인재의 필요성은 비단 우리 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가평의 토대가 되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2016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국비무료재직자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여명의 직원이 지역 환경과 연관된 수목보호관리 교육으로 공단 사업장에 산재해 있는 조경 수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장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 총무인사 과목 등 사무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해 왔다.

주목할 것은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는 지난 7월 취임한 백 병선이사장이 강조해 온 ‘직원 1인 1자격증을 통한 전문 인재육성’ 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방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현장 인턴 체험프로그램으로 공단에서 체험하게 하여 취업 희망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 없이 현장에서 실무중심의 학습으로 경력뿐만 아니라 조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현장 실무중심 교육훈련과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 등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체계를 운영하는 종합 직업능력 개발대학이다.

© 가평저널(<http://www.gpj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